



보도자료 Press Release

2021년 1월 26일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1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3701-7338

이메일: communications@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 '잊혀진 수교 30주년, 한·러 관계의 현주소'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월 26일(화), 장호진 객원연구위원(한국해양대 석좌교수, 前청와대 외교비서관)의 이슈브리프 '잊혀진 수교 30주년, 한·러 관계의 현주소'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지만 작년(2020년) 9월 30일은 한·러 수교 30주년 이었고 코로나 19로 기념 행사 개최가 어려워 2021년까지 수교 30주년 행사를 연장하기로 했음에도 여전히 별다른 관심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러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있다.

장호진 객원연구위원은 한·러 관계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저하된 것은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이나 비약적인 교역 증대와 같은 외견상 발전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정무 협력, 교역·투자 등 경제 협력 그리고 남·북·러 3각 협력과 같은 양국 협력의 주요 축에서 한반도 주변 4국의 하나인 러시아와의 관계에 걸맞는 협력의 내실화와 미래 발전의 동력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현재와 같은 한·러 관계의 저점을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해 나가기 위하여는 현실적 어려움과 여건상 한계를 감안하여 우선 정부 정책이나 접근 차원에서 가능한 전환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00년대 초·중반 푸틴 대통령 집권 초기 경험한 바 있는 러시아의 북한과의 정보 교류와 소통 능력을 활용하여 한·러간 정무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현재와 같이 북핵 문제를 미·북 협상에 맡겨 놓는 방식으로는 러시아측이 굳이 우리와 협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우리가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응당한 역할과 비중을 갖도록 북핵 외교의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장호진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포용의 명분과 북핵 문제와 같은 현실적 제약에 묶여서 20여년간 아무 진전도 없는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한 가스·철도·전력 연결 사업과 관련된 돌파구 역시 제안하고 있다. 즉, 차후 북한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되, 우선적으로는 한·러 양자 사업으로 전환·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 관련 문의: 장호진 객원연구위원 02)3711-7366, hjchang@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